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16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사변들이 아로새겨진 위대한 전변의 해, 위대한 승리자의 해인 2015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6년을 맞이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차넘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16년에 즈음하여 1월 1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찍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식으로 강산이 변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보통의 백날, 천날과도 대비할수 없는 격동의 나날로 흘러보낸 자랑찬 2015년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뜻깊은 2016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자랑스러운 한해로 빛내이는데 한몫 다 바칠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 계시면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 라는 억척불변의 혁명적진념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더욱 똬뚝같이 뭉쳐 뜻깊은 새해 2016년의 장엄한 진군길을 다그쳐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의 전문을 우루과이에, 에기스 36라지오 켈메나리오방송이 최근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선전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를 함께 편집하였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머리글을 달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시였다.

로작의 전문을 아래에 게재한다.

한편 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을 전문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지난해 12월 17일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바인자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을 맞으며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 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함부대와 제671대련함부대 사이의 쟁방실동훈련을 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가장 치밀하고 엄격한 진행에 대처하지만 실용적 측면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형식주의, 고정적식화를 물장벌레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중, 병중, 전문병부대들사이의 긴밀한 협동을 완성하고 전투행동의 불의성과 신속성, 일차성이 빛내어나가자》를 로씨야 나흐드카 포르마트출판사에서 지난해 12월 15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본사기자

큰 힘을 날음에 대한 문제 등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두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 《아르구멘티 이 프리》, 미국의 UPI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헬남의 신문 《엔도이 년진》, 인터넷통신 전 제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쉴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나이제리아, 도이쉴란트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1월 18일 기계 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올렸다.

로씨야, 헬남, 민주공고, 도이쉴란트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5월9일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는 5월9일메기공장을 조선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간주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한 메기들을 군인들과 인민들이 정상적으로 공급받고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과학기술을 끌어내고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농업화를 실현한 공장의 일꾼들을 치하하시였다.

본사기자